



평양보고서 44년만에 고향 방문 실현한 신헌민 박영숙 의원의 평양 체류기

“산천은 의구한데 인결은 간데 없더군요”

IPU 대표단의 고문자격으로 박영숙 의원이 44년만에 고향 나들이를 했다. 16세 처녀의 몸으로 월남하기까지 박 의원은 줄곧 ‘평양 토박이’로 살았던 것. 어릴 적 거닐던 대동강변, 능라도를 가득 수놓던 정취 물씬한 능수버들... 그녀의 아련한 기억속 고향과 오늘의 평양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북한 부총리 김복신, 여운형의 딸 여연구와 만나 나눈 대화를 공개한다.

취재/위재광 기자 사진/김인섭 기자



국제 의회연맹(IPU) 제85차 평양총회는 박영숙 의원에게 보통 이상의 감격적인 의미를 안겨 주었다.

그 이유는 방북 일행중 박의원만이 유일한 이북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총회가 열린 평양이 고향이었던 것. 때문에 그녀는 옛 기억을 더듬어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박 의원은 서울을 출발하기 전 부군(신학자 안병무 박사)과 설레는 마음으로 평양에서 찾아볼 사람

들에 대해 의논했다고 한다(안박사 고향도 이북이다). 실로 얼마만에 고향땅을 밟게 되었는가.

4월27일 평양으로 향하는 기차속에서, 박 의원은 44년 전 똑같은 길을 따라 남하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한다. 감시원의 무서운 눈길을 피해 가슴 졸이며 타고오던 개성행 열차. 보통사람의 신분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국회의원 자격으로 거꾸로 밟아 올라간 것이다.

옛 흔적 찾아볼 수 없는 평양거리

-친척들은 만나 보셨습니까.

“찾아보려고 애썼죠. 제 아버지쪽은 다 월남해서 없었지만, 외가쪽은 한사람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가쪽 사람들을 찾았어요. 북측에 친지 생사확인요청을 했지만, 결국 금강산 다녀오는 길에 평양 근교에서 위치만 찾았을 뿐 아무도 만나진 못했습니다. ‘중화(中和)’라는 팻말을 보고 아, 이곳이 외갓집이 있었던 자리구나 하고 확인만 했어요.

방북 일행중 친척을 만나본 사람은 채문식 고문뿐이었어요. 채의원 말씀은 친지 생사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6명이나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사람 모두가 옷을 깨끗이 입은데다 말투도 세련돼 괜찮은 일을 하고 있거나 생활수준도 꽤 높을 것이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인데 내가 찾는 친척은 험한 일을 하고 있어서 만나게 해줄 형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남편의 친척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남편이 써준 소개장을 내놔더니 시집식구들 9명 중에 6명은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는 3명 뿐이라는 말만 전해 주더군요.”

-박의원께서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평양에 계셨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의 인상과 이번에 직접 보신 것간에 어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외형상으로는 이곳이 내고향인가 싶게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 숙소는 능라도가 바로 눈앞에 내려다보이는 모란봉 기슭의 주암초대소(영빈관)였어요. 왼쪽으로는 부벽루와 을밀대를, 오른쪽으로는 대동강을 끼고 도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진 길이 있어요. 바로 어릴 적 모란봉으로 소풍갈 때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그런데 초대소에서 내려다보는 능라도와 동평양의 모습은 옛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어요.

능라도에는 유명한 5.1경기장(15만명을 수용하는 평양 최대 경기장)이 있잖아요. 작년에 대흥수가 할퀴고 간 자리가 경기장 주변에 아직 복구되지 않은 채로 있어서 아주 삭막한 느낌이 들어요. 어릴 적 을밀대에서 바라보던 능수버들로 뒤덮인



그런 능라도는 아니었습니다.”

—무척 쓸쓸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그래도 대동문, 대동교, 연광정 등은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파괴되지 않고 예전 모습대로 남아 있어 향수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곳에 깃든 추억거리는 뭐 없나요?

“대동교를 보니까 문득 걷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더군요. 그 다리는 내가 학교 갈 때 걸어다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안내원에게 부탁했더니 허락을 해줘 잠시 걸어보았어요. 그때는 다리가 엄청나게 웅장하게 보였는데, 이번에 건너면서 보니까 아주 보잘 것 없는 시골다리에 불과해 실소를 했지요.” (웃음)

벤츠 승용차 타고 9일간 특별 대접받아

—이번에 채문식 의원과 함께 북측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서는 아주 철저한 위계질서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어요. 저는 채고문과 같이 고문자격으로

금강산식당의 여성 접대원들과 함께.

대동강가에서 만난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오른쪽은 조세형 의원).

IPU대회장에서 여연구씨(여운형의 둘째딸)와 함께. 여연구씨는 서울말씨에 가까운 언어구사와 세련된 회의 진행 솜씨로 눈길을 끌었다.

금강산의 기암절경은 곳곳에 새겨진 붉은 글씨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갔는데, 북측에서 대표단장을 포함해 저희 3명에게만 따로 고급승용차를 제공했습니다. ‘벤츠 280’이 어느 정도 차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로 9일간 잘 보냈어요.

벤츠를 탔던 것도 그렇지만 자동차의 행렬이 서열대로 되기 전에는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찬장서도 그렇고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고 서열대로 앉아야 진행하는, 완전히 틀에 잡힌 대우였어요. 나중에 다른 의원들 말이 숙소에도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고 해요. 고문은 의원들과 접대가 다르다고요.”

—박의원께서 북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까?

“첫째가 여성문제예요. 북한은 지난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 남녀평등, 여성해방에 대한 제도적 선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북한의 여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둘째는 북한사람들 개개인의 통일열의가 대단한데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고, 셋째는 환경문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는 거였지요.”

—그래서 직접 살펴보신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성문제는 시행령 선포 후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상당부분 뿌리가 내려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북한 여성은 총 취업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최고인민회의에는 21%의 의석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의회에는 진출 비율이 더 높다고 해요. 그곳의 여성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여성들은 이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각기 맡은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를 외교분야



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연구(여운형의 둘째딸) 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에게서, 김복신 부총리(경공업 부문 담당)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 차별이 아니라 계층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거였어요. 성분별로, 도농(都農)간에 생활수준이나 사고의식이 크게 달랐거든요.

통일열의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물어 보았어요. 무엇이 당신네로 하여금 그토록 통일의 열망을 갖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한결같이 ‘김일성 주석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지만 통일만은 선사하지 못해 가슴아파 하신다, 그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열이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삶, 무의미한 삶 등 모든 문제의 귀착점은 언제나 김일성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움과 우려가 교차했어요. 김일성이 사라지는 날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둥으로 살아갈 것인가...

“금강산 다녀와서 계단 오르기가 겁나요!”

—여연구씨와 만나신 일이 평양 체재기간 중 우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셨습니까.

“여연구씨와는 만나게 될 것을 알았기에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구요.”

—어느 분이 부탁을 했나요?

“이태영 박사요. 이태영씨와 여연구씨는 이화전문 때의 선후배 사이고 저도 이화 출신입니다.

본회의 전달은 여성의원 총회가 개최되는데 주최국의 여성대표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연구씨가 의장을 맡았어요. 회의 진행 솜씨가



평양대동문 앞에서 포즈를 잡은 박영숙의원.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득 안고 금강산 삼선암에 올랐다.

“여성의원총회의 사회는 주최국 대표의 자격으로 여연구씨가 의장을 맡았어요. 매우 세련되고 손색없이 진행하는 걸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여연구씨의 경우 아버지인 여운형씨 묘소나 친구, 일가친척이 모두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수어리고 향수에 가득찬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보다 절박한 통일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련되어 내심 놀랐어요. 말투도 서울 말씨에 가깝고 지도력도 상당한 분이였어요. 북한 사회는 여성 지도력을 한 부문에 오래 관여하게 함으로써 1인자를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마는 우리네 여성현실과 비교되어 조금 부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친 언니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여연구씨의 경우 아버지인 여운형씨 묘소나 일가친척 대부분이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향수에 가득찬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보다 절박한 통일열의를 느꼈습니다.”

—박의원께서는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셨고 환경문제 상담전화인 ‘녹색의 전화’의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평양에 머무는 동안 금강산 관광도 다녀오셨는데,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개발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산을 오르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와서도 계단 오르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금강산 가기 전 통천(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고향) 주민들을 만나 봤는데 정회장의 금강산 개발 약속에 관심이 매우 많더군요.

그래서 남과 북이 공동개발에 착수하면 통일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돼 좋고, 그 절경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오염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대동강물은 먹어도 될 만큼 깨끗했어요. 그리고 평양의 공기는 우리 대표단 일행 모두가 입을 모아 감탄할 정도로 맑고 좋았어요. 하긴 자동차도 별로 없고, 적게 생산하고 적게 쓰고 적게 버리니 오염의 원인이 될 게 없지요.”

—여성의원으로서 통일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리라고 보시는지...

“김복신 부총리가 그러더군요. ‘통일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김복신, 여연구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산가족찾기도 물론이지만 특히 70~80세된 이산부부들, 아직도 재혼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자, 그들이 죽기 전에 한을 풀어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하고 말이죠. 이것은 이태영 박사의 제의이기도 한데 모두가 수긍을 하는 눈치였고, 평양을 떠나기 전 북측으로부터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일은 그렇게 쉬운 일부터 풀어나가야죠.”

박영숙의원은 이번 고향방문에서 옛날 살던 집도, 옛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못내 안타까워 했다. 거리 이름이나 동네 이름이 모두 바뀌고 옛자취는 흔적조차 없어 살던 고향집 위치마저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Q